東大新聞
發行人 趙明基 · 編輯人 李希相 · 印刷人 趙均晟
發行所 서울市中區淸水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③3130—9 本社直通②8498
(每週月曜日發行) 6個月分·200원

榮光을찾아한未來像들…

新入生들 大學에 첫발

研學다짐속에 6日 入學式

平均6·5對1이라는 燃烈한 競爭을 보인 今年度新入生選拔試驗은 지난 2월18일부터 3일간에걸쳐 實施, 25일에는 榮光의 合格者 八백명이 發表되어 오는6日上午 中講堂에서 名門에의 첫 걸음을 내딛는大學式을갖고 來日의 흉흉한얼굴이 될것을 다짐하게된다. 총五一八〇명이 志望한이번 入學試驗에서 法學科의 李希相(景福高出身)君이 名譽의 首席을 차지하였다.

<景福高出身> 李希相君

李希相君最高得點

지난二월十八일부터 실시된이번 入試는 國語 英語、數學、선택등 四個科目에 걸친 筆答試驗을 試驗初日에끝내고 이어面接과 身體檢査가 名科別로實施되었다.

五個大學 三十學科중에서 가장 경쟁율이 높았던學科로서는 經商大의 經營學科로서 四〇명모집에 五八五명이응시하여 十一·七對一이라는 좁은門을 이루었고 政外·行政·商學·食品工學科등도 十對一이넘는 경쟁상을 보였다. 그리고 二部大學은經營學科 八·六對一, 商學科 六對一의順으로서 經商系지원자가 날로增加하고 있음을 엿보게했다.

한편 지난二五日 發表된 合格者들은 入學式에이어 總生會主管으로進行되는오리엔테이션에 좁은門을 뚫고 入學한 各單科大學別 首席合格者들로면 불교대학에서 義普(불교과·사천農高)君 · 文理大에 金哲鎭(漢劇映畵科·皮北師大附高)君, 法政大에 李希相(法學科·경북고)君, 農林大에 李相喆(食工科·서울高)君, 經商大에 張현주(經營科·경북高)君이다.

名科別 競爭率과 首席合格者는 다음과같다.

▲佛敎科=2·7對1 朴義營(사천農高) ▲哲學科=3·2對1 李吉東(培材高) ▲印哲科=3對1 李吉東(能仁高) ▲國文科=6·2對1 趙光範(鳳福高) ▲英文科=5·9對1 鄭鎭鎬(城北高) ▲史學科=9·3對1 金永詰(大田高) ▲演劇映畵科=8·4對1 金哲鎭(慶北師大附高) ▲數學科=1·5對1 金忠男(五賢高) ▲物理科=1·5對1成完桂(景福高) ▲化學科=2·3對1曺海敏(金堤高) ▲統計學科=1·4對1金暢(狀南高) ▲法學科=11·2對1李希相(景福高) ▲行政學科=10·8對1崔炳國(京東高) ▲警察行政科=10對1鄭煥奎(天安高) ▲農學科=10·9對1盧鍾根(晉州高) ▲農林大=9·五對一金正健(晉州高) ▲商學科=一金正一(經營科=一·奧星張(龍山高) ▲經營科=一·七對一張鉉周(鳳福高) ▲貿學科=六對一文石基(徵文高) ▲九林學科=六對一二對一李南雨(永登浦高) ▲食工科=一·三對一李光源(光州第一高) ▲農經科=四·七對一鄭正男(光州第一高) ▲法學科=二·二對一李光源(錦材高) ▲行政科=二·四對一金方奎(狀東工高) ▲警行科=二·七對一全京一(狀東高) ▲經營科=二·四對一羅丙鶴(大田高) ▲商學科=六對一徐敎授(鳳仁商高) ▲經營科=一·八對一李碧雲(大田高) ▲經營科=二·八對一金基(仁川高) ▲經濟科=二·三對一李泰敏(三仙高) ▲二部大學> ▲法學科=二·八對一金基(洪·鳳仁商高) ▲農外科=七對一全京一(狀東高) ▲經濟科=二·四對一羅丙鶴(大田高)

學生証發給

學生課에서는 5日부터 15日까지 在學生들의 學生證交付를 하였다. 發給事務는 이에따라 取扱하는 장과 등록영수증을 증명사진 일체를 제출하여 주도록 하라고 있다. 학생들의 누락자는 없기 바란다.

스키班또優勝차지

國體 노르딕大學部등서

지난二十三日부터 三日間에 걸쳐 대관령車廣里「소로프」에서열어진 第四十六回全國體育大會冬季스키大會에 出戰했던 本校스키班은 「노르딕」大學部四〇KM리레이에서 優勝을하는등 많은成果를 올렸다. 그런데이번「스로프」의적설은 풍부했으나 雪質이좋지않아苦戰을 免치못했으나 平素때의 꾸준한「트레이닝」과분투로서 本校스키班은 대기록을 세웠다.

한편 十八日부터二十日까지 三日間全國學生스키競技大會 및 選手權大會에서도 풍부한 스키班의實力을 遺示했다.

◇第四六會國體스키大會 ▲노르딕 ▲△四〇KM계주=一位·東國大 ▲△一五KM=二位·李盛和(經四) ▲△三〇KM=二位·李盛和(經四) ◇第十七回學生스키大會 △알파인 ▲△대회전=三位·박헌균 ▲△회전=二位·박헌균 ▲△신설활강=二位·박헌균 ▲△노르딕 ▲△40KM계주=二位·李盛和 ▲△15KM=二位·李盛和 ▲△30KM계주=三位·東國大

<書信을받은總長과徐敎授>

警察學徒에 "正義와眞理의象徵되라"

美FBI후우버局長 書信

美國은 勿論自由世界의唯一한 警察指導者인 F·B·I 聯邦捜査局의 창·에드거·후우버局長은 지난二일 本校警察行政學科 徐基永主任敎授에게 警察行政學徒를 爲한 指針을 보내왔다.

그런데 徐敎授는 一九五三年 渡美時후우버局長을 訪한후 계속 書信으로나마 親交를맺어 왔다. 그리고지난一月中旬頃 韓國警察學徒의 苦境을 書信으로 傳達하였던것인데, 이에대하여 回信이 到着한것이다.

이 回信에서 후우버 局長은 「警察官은 社會의至上 權益을 侵犯하는 모든 者에 對하여는 因果應報의 象徵이 될뿐만 아니라 實로 正義와 眞理의 象徵」이라는 要旨로 警察官의 指針을 提示하였다. 確信 今世紀警察의 方向을 立한 후우버 局長은 一九二四年 29歲의 젊은 나이로 FBI局長에 就任한以來 現在에 이르고있다.

이 書信은 警察行政學科는물론 韓國警察學徒들에게 길이 垂範이 될것이라고 말하고 警察行政學徒들의 綱紀的 指針이 될것이라고 평했다. <關係記事二面에>

登錄金引下등建議

二日, 總學生會長團서

新學期를맞아 總學生會長團은 지난二日 「캠퍼스」 한 登錄金의引下를 要求하였다.

二日 上午會長團會議에서 萬場一致로본 六個項目의同 建議案은 鄭英樹(行四) 總學生會長에의해서 書面으로 提出되었는데 이자리에서 趙總長은 물론금의五〇%인상은 現下 物價指數와 學校財政運營上不可避한 일이라는것을알게 여러분들이 理解하고 前提하고 「기타 學生들이 建議한內容은 充分히 檢討하여 改善하겠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學校當局은 私立大學總長會議에서 「引上된 登錄金은 學校運營上 꼭필요한 액수이므로 다시 引下할수없다」는 決議內容을 想起 시키면서 引上된 額數대로 期日內에 登錄을하도록 바라고 있다.

會長團이 學校當局에 建議한 六個項目의 內容은다음과 같다.

①感想, 敎育國費의 充分한 賜八 ②물품금의 五〇%이上은 過하니 引下하는方向으로 調節할것 ③셔비스기관(식당, 이발소, 대점, 양화점)의 서비스 提供과 衛生管理의 철저, 特히 保健所의 學生利用度를 높이기爲해 節次의 간소화. ④二部大生을 爲해 國語의 一日貸與와 밤공부하는데 지장이없도록 간이식당의 開設. ⑤學生活動의 迅速性을 爲하여 學生會費의 決議를간소화할것. ⑥敎職員들은 學生들에게 친절할것.

<김영수農學士> <金奎洙敎授>

金奎洙敎授에農博

2月26日, 서울大서

본교농학대 食品工學科 金奎洙교수는 서울大 大學院 食工科주임으로 後進養成에 이바지하고있는 金·洙교수(41세)의 박사학위論文의 主論文은 「家禽및 海藻類의 RNA에 關한 연구」(二편)이고 副論文은 「眞石花菜의 糖및유리아미노산에 關한硏究」등 五편이었다.

求論文이 지난十二월 통과되어 二월二六일에 學位를 受領하였다.

食工科주임으로 後進養成에 이바지하고있는 金·洙교수(41세)의 박사학위論文의 主論文은 「家禽및 海藻類의 RNA에 關한 연구」(二편)이고 副論文은 「眞石花菜의 糖및유리아미노산에 關한硏究」등 五편이었다.

<學徒를 爲한 指針을 보내왔다>

反省鏡

年退職하나고하자

이것을 屋樑감으로 삼자면 ①大學入學 ②大學졸업 ③會社入社 그리곤 停年退職이 된다. 이렇게 석줄밖으로 끝나는 人生이다. 생각하기에따라선 단탄할수도있고 슬퍼한 履歷이 될수도있다. ▲大學으로가는 길은 좁기만하다. 대개가七、八對一의 심한競爭率을 뚫고 차지할수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合格의 榮光을차지한 新入生들이 그 토의꿈을 成就하자면 그보다더 가혹한시련을 견디어야할것이다. 앞으로 四年間은 곧 자기의至高한 未來상을 마지막으로 다듬는機會가 된다. ▲大學生活은 자기의 指導者로 最適의 원활화와 學生活動의 애로점을 打開하기위하여 警察의 指針이 될것이다. 警行科學徒들의 綱紀的 指針이 될것이라고 평했다. <關係記事二面에>

<석줄(三行)반의 人生이란말이있다. 大學을졸업한뒤어느곳에 就職하여 근무하다가 停年退職하나고하자. 그런데 이것을 屋樑감으로 삼자면 ①大學入學 ②大學졸업 ③會社入社 그리곤 停年退職이 된다. 이렇게 석줄밖으로 끝나는 人生이다. 생각하기에따라선 단탄할수도있고 슬퍼한 履歷이 될수도있다. ▲大學으로가는 길은 좁기만하다. 대개가七、八對一의 심한競爭率을 뚫고 차지할수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合格의榮光을차지한 新入生들이 그 토의꿈을 成就하자면 그보다더 가혹한시련을 견디어야할것이다. 앞으로 四年間은 곧 자기의至高한 未來상을 마지막으로 다듬는機會가 된다. 교수들의指導로 最適의 원활화와 學生活動의 애로점을 打開하기위하여 警察의 指針이 될것이라고 평했다. <關係記事二面에>

三級公務員에 朴鍾國君合格

三星, 東醒등 獎學生發表

지난 二五日 學生課에서 알려온바에 依하면 年間三五,〇〇〇원을 支給받게되는 三星奬學生 年間 三〇,〇〇〇원을 支給 받게되는 韓奬學生 年間一六,〇〇〇원을 支給받게 되는 東醒奬學生(農林系에限)이 各各발표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選拔된 奬學生들은 지난 十二月 七日에 實施했던 公開試驗(筆答) 成績과 學科成績을 參酌하여 決定된 者들이다.

한편奬學會, 同窓會奬學生은 ROTC 강의실에서 祝賀 파티로 祝賀會를 가졌다.

朴鍾國君은 第八回三級公務員任用考試에 優秀한 成績으로 合格하였다.

三次에걸친 시험결과 榮光의 合格을한 朴君은 國書館에서 꾸준한 努力을해왔다.

<朴鍾國君>

徵集延期願交付한다

希望者는來20日까지

在學生으로서 徵集延期願을 받고자하는 者는 오는二〇日까지 소정서류를 본하고있다. 그런데 法定提出期日內에 出願하지않는경우에는 징집연기의 意思를에限) 에게

未來를 向한 진통은 知性

‖첫발을 내딛는 大學生들에게‖

……李 哲 範……

(一)

겨울은 끝났다. 얼어붙었던 거리, 그거리마다 늘어선 裸木들, 어느 헐벗은마을과도같다. 그위로 숫한惡夢이 지나갔다.

이젠 한결 따스한햇빛. 나무마다 움트는 싹. 얼어붙은 땅, 얼어붙은 마을을 이 풀려오면 건너는 會話. 만지는 손마다 감도는 미소, 제절로 살것같다.

봄은 역시 기쁨을 주는 계절이다. 부라우닝같은 詩人의 詩가아니라도 봄은진 恐怖의 겨울을있고 그곳에서 시작한다. 흡사 대학의 문을 열고 첫발을 디디는 學生들의 마음과같았으리.

그렇지. 入試의 어려운경쟁을 치루고, 대학의 문턱을 넘는순간. 그기쁨 그포부 고등학교시절의 낡은옷차자는 새로운것으로 바뀐채 하나 炎元이 불은 새로운 생활을맞아야 한다. 대학으로 진학하는 순간, 고등학교는 끝나면서 계속된다. 먼저 무엇인가 「끝나면서 계속한다」는 뜻을 두렷이 인식해야하겠다. 敎育은 知識과함께 人格을쌓는 일이라면 大學에의 進學은 學問知識을 배우는동시, 市民社會의 한사람내지는 더 더가되는 人格과 敎養을쌓는것을 말한다. 그일엔 먼저 國家에있어서 大學의使命을 인식하는일이 중요하다. 先進國家의 大學이 그 나라의 歷史와文化를 창조하는데 民主的 現代社會를 건설하는데 어떠한 役割을 다했는가 특히 敎育의힘으로 民主主義와 近代化를 後進國에서 이룩해야할 大學의使命은 國家의存亡을 좌우한다는사실을 깊이 명심해야하겠다.

어떤나라를 막론하고 그나라의 民度는 大學이라 할수있다. 大學의 自由, 權威, 傳統이 서있는나라, 누구보다 강히 그나라를 넘겨보지못한다. 英國과 英國의역사를 지키는 옥스포드·케임브리지—美國을지키는 하버드·예일—스스로의 나라를 지키고있다. 그나라는 世界에이바치하고있다. 그 大學들은 여러國家가 世界속에서 共存하면서 역사를 움반하는 창된뜻을 일깨워준다. 어떤 獨裁者도 世界를 파괴할수 없다는것을 가르켜준다. 大學의自由나 權威가 무너진 나라 그나라는 스스로 비참한운명을 면치못할것이다 그나라는 찬란한 역사를무시면서 다른나라와 견주어 떳떳이 살아갈 무턱힘도 없다. 아무런힘도 없다. 어떤나라의 武力앞에서도 뚜렷이 認識에서부터 專門知識과 人格에서 인식해야하겠다. 그 이뿌리박고있는國家를 역사가치를 西歐民主主義의 精神으로 변경시켜야하는 가치로 변혁해야요 ②는 西歐知識의 改革이요 ③는 西歐社會의 技術의 습득으로 社會

(三)

學의 使命은 어디있는가. 모든學徒들이 당하듯 後進國에서 敎育은 커다란資本이란 現代社會를 맞을수있는 精神 思考가 필요하다.

한국의입장에선 工場을짓되고 高等敎育은 쓸수없는 資本으로만 蓄積되고있다. 大學까지의英大한 돈, 時間, 努力, 知識이 낭비되고 있지않는가. 그때 大學은 社會와 直結되는 일을 찾아 生産을 生産으로 돌려야한다. 大學敎育이 社會에서消費되지않고 무엇인가 生産의 敎育을 산업과 직결되고있다. 한편은 새로운專門知識을배우고 다른편에선 그知識을 새롭게 쓸수있은 새로운思考, 실로大學의使命은 한국의근대화에 직결되고있다.

얼치기정치가들이 입으로 떠드는 口號가아닌 실제일을 대학교육에서 해야한다 그러기때문에 대학교육을 궁리하고 한국근대화의 한사람이 되는 결국 우리의未來는 그젊은 知性의 손과머리에 달려있는것이다. 한편 한국의 大學은 우리의歷史的 現實속에서 깊이진솔해야한다. 한국의大學은 百民社會

(四)

의 한사람이되는 敎養을쌓지도 못하고 또한 專門知識을 올바로 습득하지 못하고 그나마 宗敎的 理念이 되지못한 나라에서 大學은 社會와우리 資本으로만 蓄積되고있다. 大學까지의英大한 돈, 時間, 努力, 知識이 낭비되고 있는 한국의 現實에서 大學은 社會와 直結되는 일을 찾아 生産을 生産으로 돌려야한다. 大學敎育이 社會에서消費되지않고 무엇인가 生産의 敎育을 산업과 직결되고있다. 한편은 새로운專門知識을배우고 다른편에선 그知識을 새롭게 쓸수있은 새로운思考, 실로大學의使命은 한국의근대화에 직결되고있다.

얼치기정치가들이 입으로 떠드는 口號가아닌 실제일을 대학교육에서 해야한다 그러기때문에 대학교육을 궁리하고 한국근대화의 한사람이 되는 결국 우리의未來는 그젊은 知性의 손과머리에 달려있는것이다. 한편 한국의 大學은 百民社會 우리의歷史的 現實속에서 깊이진솔해야한다. 한국의大學은 百民社會

(五)

의 建設과 들어고치는 일이다. 이들에면亞細亞的農村社會에서 産業, 工業社會로옮겨와야할 技術의革命을 달성도 많은 大學의建物과大學, 精神속에 있는것이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젊은知性은 기말보 在와未來에 결부되는大學, 거기서 자기가 할일을무제적으로 결정해야한다.

大學은 現代의 旗手

‖忍耐와鬪志로 現實을 克服해야‖

大學生의 使命 認識함이 重要

朴 錫 珍

(六)

그럼다면 우리나라에서大學의 使命은 어디있는가. 모든學徒들이 당하듯 後進國 現代社會가 성립되는것은아니다. 그工場을 움직이고現代社會를 맞을수있는 精神 思考가 필요하다.

한국의입장에선 工場을짓되고 高等敎育은 쓸수없는 資本으로만 蓄積되고있다. 大學까지의英大한 돈, 時間, 努力, 知識이 낭비되고 있지않는가. 그때 大學은 社會와 直結되는 일을 찾아 生産을 生産으로 돌려야한다. 大學敎育이 社會에서消費되지않고 무엇인가 生産의 敎育을 산업과 직결되고있다. 한편은 새로운專門知識을배우고 다른편에선 그知識을 새롭게 쓸수있은 새로운思考, 실로大學의使命은 한국의근대화에 직결되고있다.

얼치기정치가들이 입으로 떠드는 口號가아닌 실제일을 대학교육에서 해야한다 그러기때문에 대학교육을 궁리하고 한국근대화의 한사람이 되는 결국 우리의未來는 그젊은 知性의 손과머리에 달려있는것이다. 한편 한국의 大學은 百民社會 우리의歷史的 現實속에서 깊이진솔해야한다. 한국의大學은 百民社會

(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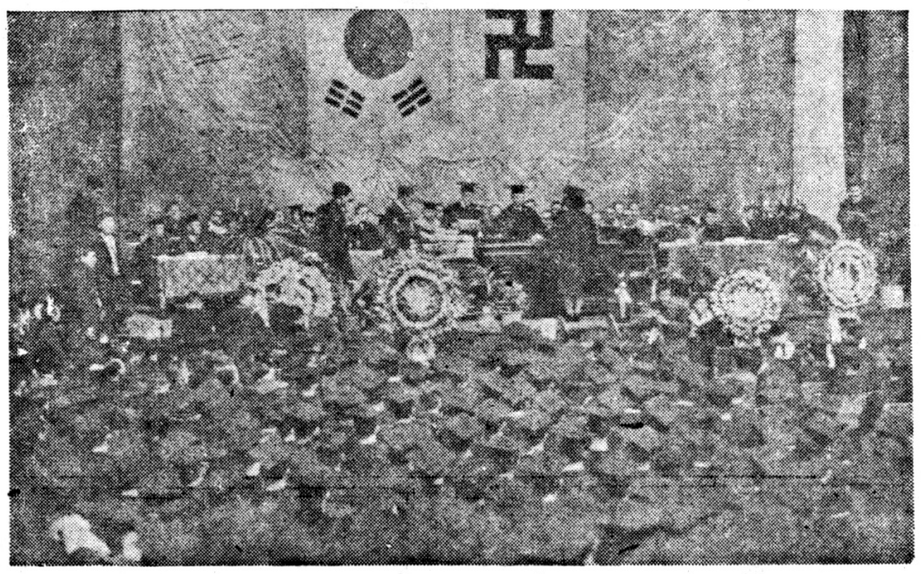
의 建設과 들어고치는 일이다. 이들에면亞細亞的農村社會에서 産業, 工業社會로옮겨와야할 技術의革命을 달성도 많은 大學의建物과大學, 精神속에 있는것이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젊은知性은 기말보 在와未來에 결부되는大學, 거기서 자기가 할일을무제적으로 결정해야한다.

(八)

대학의문을 들어서는 순간—열린 문을 들어서는 한히트인 國家의 未來를 긴장된 눈으로보아야 한다. 現實은 순간적이며 가면적인 것이다. 너무 현실에 민감하지말고 긴 역사의 눈으로 현실을 볼 필요가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大學은 試練을 겪고있다. 經濟上, 高等敎育上, 또한 다른면에서 시련을겪고있다. 政黨은 서로 싸우고 전말전 大學은 역사적 현실속에 초연히 서서 學問의自由와 權威를 굳건히 지켜야하겠다. 그것이 우리의歷史인 國家의 눈으로보아야 한다. 現實은 순간적이며 가면적인 것이다. 너무 현실에 민감하지말고 긴 역사의 눈으로 현실을 볼 필요가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大學은 試練을 겪고있다. 經濟上, 高等敎育上, 또한 다른면에서 시련을겪고있다. 政黨은 서로 싸우고 전말전 大學은 역사적 현실속에 초연히

렌즈에 담겨진 캠퍼스의 숨결

乙巳의」카렌더」가두장이나 넘겨진 지금우리는 바야흐로 첫開講의始動을 걸고있다。무엇을 어떻게어느만큼이나 해야할것인가。每年 맞이하는새해아침처럼大學의「스타트·라인」에서또다시 생각하게된다。우리가 지금 어디로 뛰어가는것일까。每年뛰어온 우리의목적지는 무엇이며 무엇을 얻었던가。우리는 歷史를갖고싶다。누구에게도 支配되지않는歷史를。이歷史를갖고싶은마음은「이야기」를 갖고싶다는것과도 통한다。오늘날우리에겐 이야기기없다。話題없는 群衆。이야기꺼리없는 對話番의 얼굴은 빈사의 形象이다。人類가 비롯하고부터 人類文化史는 있어왔고 또줄기차게 흘러왔다。歷史란 어제바로 과거를갖고있고 또來日 곧未來를 기지고있다。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는 危懼비슷한것은 우리의 안팎에서 허다한 얼굴들에서 過去도 未來도없는 오로지 現在를서성대는 그림자들을보는때문이아닐까。<오늘을사는世代>라는 新造語에 비수를對하듯 섬찟한 전률을 등골에 느낀다。그렇다。우리는 지금장한의 미에서든 못난의미에서든<오늘을사는 世代>란 더할나위없는 이름을갖고있다。엄밀한 의미에서오늘을사는 우리世代에 어제는, 그리고 내일도 메모되어 있지 않은것같다。우리는 가끔 歷史에서 疎外된 流刑地에서 오로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것만같은 幻覺을 자주 하곤한다。이것은 어쩜 우리가 너무 가난한탓인지도 알수없다。「유토피아」의꿈을 그리기보담 우리는 現實에서 우리의꿈을, 이야기를, 歷史를 만들어야겠다。그래서 누구에 依해서 그 侵害되지 않은 우리데로만의에기를 가져야겠다。부디 올해가 東國大學校에「영광의 乙巳年」이되길 바라며 冬期放學中 學校內의 諸行事를「카메라·렌즈」에담아보았다。<植>



들며날며 마련되는 忍苦의 結實

希望보다는 不安이… 지난 2月8日 1,087名의 學士들이 「社會風浪號」를 타고 校門을나갔다。그들의 行先地를 정확하게 알고있는사람이 몇사람이나 될까。그들의 座標는 出世? 그들의 힘은무엇일까。實力? 글세, 갖가지 意味의 實力이 必要하겠다。學士帽를 쓴그들의「顔面氣象圖」는 希望보다는 아쉬움이, 期待보다는 焦燥가 移動性低氣壓으로흐려지고 있었다。실업가(實業家)를 願하던그 포부가 現實앞에 失業家도 轉落되는 마당에 있어서랴。영원히 學生이라면 좋겠지만。 그래서「卒業式」이「失業式」이란 流行語로 까지나온지도 모른다。한편 이날의 卒業에서 32名의 碩士가탄생되었으며 崔鳳守敎授에겐 名譽文博,李昇雨,朴勝鶴 敎授에겐 名譽藝術專士學位가 各各수여 되었다。

梁榮薰撮影

<本社寫眞記者>

좁은門…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는사람이 있는것은 하나의 秩序이다。이번해는 前年과달리數學이 一律的으로 시험과목에 채택되어서 그런지 지원자수는 좀줄어든감이 있지만, 그래도6·7對1의 좁은門—。아직도 이들이 치루어야할 시험은 많다。試驗지옥을 요령있게 헤엄쳐가는것이現代處世第1條인지도 모른다。經商大系統이 高率을 올린것은 약삭빠른 현실감각이작용한것인지—。역시,우리나라大學은「취직을爲한 道場」으로 變貌해가고 있는걸 한탄해봐야 소용없는일。펜을쥐고 답안지를 대하는 그들의모습은 애처러운 마직막의 안간힘처럼,파르르 고동쳐 온다。

楊致光文庫室 期待속에開館

우리학교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던 在日교포 楊致光氏가 農業全般에 걸친도서를 本校 中央도서관에 寄贈한사실은 그리우연한 일이아니다。 赤手空拳의 몸으로 日本에건너가 오늘날 在日교포간에 屈指의 實業家로 성공한氏는 故國農村의 유토피아建設을 항상꿈에그려온 篤志家라고。 그는 우선 故國의 農學徒들에게 先進國의 진보적農業理論을 習得케 해야겠다고 마음에 품어오던중 本校同門 申國柱박사의 주선으로 WFB七次大會에서 歸國途중 日本에 들린 趙總長에게 도서目錄을 기증함으로서 꿈의實現을 보게 된것이다。

지난2월9일 卒業式이끝나고 二時에 「양致光文庫室」開館式에直接 飛來하여 테이프를끊는 氏의 얼굴은 진지한기쁨과 희망이 넘쳐흘렀다。

于先 一次分으로 日書五百卷 韓書三百卷 都合八百餘卷으로 門을연「양치광문고실」은 계속 農業에對한圖書로 書架를장식하게됐다。

부디 우리 農林大生들은 이정신을 본받아 農村을일으키는데、農業의 技術發展에 前衛隊가 되기를。한편 在日교포인 金宗禧氏도 작년에 日本學術誌 多數를本校에 기증한바 있는데 올해들어 또다시 二百卷의도서를 기증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도서관에서는 기쁨에 차있다。 그리고 史學科의 李泰永교수 주선으로 오스트리아「원」대학 도서관에서 一次도서를 받은바 있는데 李교수에 의하면 二次分의 圖書가 올것이라고 期待하여 「도서기증」의부드가 造成되어 가고있다。六·二五로 귀중한 도서를 많이 잃어버렸던 도서가 점차 擴充을 期하게된것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생전체의 기쁨이다。

先祖가 남긴 永久不朽의 名作 總集大成!

韓國古典文學全集 全五卷

本全集 五大特長

(1) 权威있는 當当作品 解說。
(2) 完璧을 期한 古文의 現代記。
(3) 難解한 文句에 対한 簡明한 註釋。
(4) 最初로 活字化된 珍本数多.
縮小·改作·誇張없는 原作그대로의 內容。
(5) 独特한 体裁.
稀貴한 古代美術의 原色版 裝幀。

編輯委員
- 金光洲
- 金起東
- 金龍濟
- 李家源
- 張德順

國文學史에 빛나는 代表作 46篇을 分類 收錄

■第一卷 金鰲新話、兩班傳、虎叱、許生、金鈴傳、崔孤雲傳、英英傳、興夫傳、토끼傳、가루지기打令、裵裨將傳、雍固執傳、鼠同知傳、花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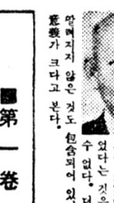
■第二卷 壬辰錄、劉忠烈傳、趙雄傳、張國振傳、田禹治傳。

■第三卷 仁顯王后傳、恨中錄、癸丑日記、謝氏南征記、沈淸傳、薔花紅蓮傳。

■第四卷 九雲夢 彰善感義錄、朴氏傳、洪吉童傳、李春風傳、朴文秀傳、周生傳、두껍傳、장끼傳、콩쥐팥쥐。

■第五卷 春香傳、淑香傳、雲英傳、彩鳳感別曲、烏有蘭傳、梁山伯傳、玉丹春傳、白鶴扇傳、淑英娘子傳、玉娘子傳。

古典保存에 큰 業績



劉鳳榮 (朝鮮日報·主筆)

日政에도 그리하였지만 今日에 있어서도 우리靑少年들은 남의 것은 알면서도 自己의 것은 도리어 잘 모르고 있다。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古典文學을 한벌 묶은 全集이 希望社의 努力으로 世上에 나오게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더우기 이 中에는 그리 흔하게 얻어지지 않는 것도 包含되어 있어 古典保存이란 點에서도 그 意義가 크다고 본다。

天下 逸品이다

梁柱東 (文學博士)

이 全集은 우리 先代의 精神文化財를 알음알이게 간수된 것이어서 읽을수록 보람을 느끼게 한다。 古典의 價値를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集大成하기란 至難한 일이다。 天下逸品이오 山海珍味이니 어찌 試食을 주저하랴。

問題性 띤 文學徒 必讀物

白鐵 (文博·新聞學)

어느 時代에나 古典은 傳統을 創造하는데 있어서 엘레스의 헤일을 한다。傳統이 새로이 問題가 되고있는 이때에「古典文學全集」의 出刊은 우선 文學徒에게 一大喜消息이 아닐 수 없다。問題作品들을 읽고 청가하여 民族文化의 主體性을 찾고저 했으면……。

女性의 逼迫 情緖를 위하여

朴花城 (女流作家)

전통있는 나라와 가정의 문화와 법도가 新生國家나 신흥가정의 그것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格이 높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이 다섯 卷의「한국고전문학전집」을 未來를 바라보는 作家이면 누구나가 가슴으로 어진 어머니와 아내가 될 우영에 있는 女性들은 반드시 읽어서 參考로은 情緖와 話題의 세로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는다。

各界 推薦辭 (가나다順)

完璧에 가까운 古典의 現代化

金八峰 (小說家)

文學을 전공하는 사람이거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古典은 알아두어야 합니다。그런데 현대인이 알기 쉽게 이것을 읽히게 된 책이 없어서 우리만을 完成시켜 주었다。 참으로 고맙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도 말했다고 생각한다。

韓國古典文學全集 全五卷

-地方普及所-

釜山 大邱 大田 安東 大邱 光州 全州 大文 光州 陸永 音學 七星 書在 書文 書堂 書堂 林書 店林 堂堂 書堂

-市內普及所-

⑥③ 6 3 1 2 ⑦② 7 1 4 0 ⑧ 1 2 0 6 ⑫ 2 3 4 4 ㉒ 7 2 1 4

文三 文化 文化 文和 文成 文堂 文書 文書 文書

힘찬 젊음의 깃발처럼 「앵커」소리에 봄은 다가선다

<영화촬영 훈기자 本社에서 道峰山 遷南지 · 진사>

○…三月이 왔다。 질펀한 大地에 우리의 東岳도 불은찾아들고 있다。 「스팩스」를 벗는 女心처럼 三月은 우리에게 부푸른 가슴과설레임을 갖다주는 달이다。 뭔가 期待를겐고 싶은달! 三月의설레임은 다만 女人들이 갖는 말뿐이 아닌 期待많은 달인것 같다。

○…싸늘한 窓間에서 차거운 岩壁을뒤이고 「자일」을 움켜잡는다。 메아리치는 「앵커」소리에 「자일」은 싱싱한 생신감이 더욱 팽팽하게 생명력을 갖는다。

「야 호!」 「야 호!」 산울림은 보담쳐오는데 멀리地平線에선 힘찬 젊음의 깃발이 으로는듯하다。

메 모

▼1日=三·一節(46回) ▼2日=開講 ▼6日=新入生入學式·경칩·國旗制定日 ▼8日=第中武公生생일 ▼9日=發錄마감일 ▼10日=勞動의 날·島山先生忌日 ▼15日=砂防의날 ▼21日=春分 ▼29日=月南 李南在先生忌日

映畫속의 青春像

<大學生을 冒瀆하는 青春映畫를 告發한다>

李丁植

『그 映畫는 만화(漫畫)를보는氣分이 머군』하고 영화가 영망일때 그 영화를 만화라고 혹평하는 소리를 자주듣는다。 이 「映畫漫畫論」은 國産映畫인 경우 더욱 많이 適用된다。 특히 大學生과大學生活을 主題로한헤일수없는 수많은映畫에서 역시 「映畫漫畫論」을 듣지 않을 수없다。 그려져있는大學生이나 大學生活이나 심지어는 안경만쓴 명청한 敎授들의 行動까지 만화를 보는 기분이기 때문이다。 잘못그려진 대학생상, 청춘상, 모욕받은 대학생—。 결코 그렇게되기에는 遙遠하다는 前提아래 全대학街의 良心으로 所謂「청춘영화」를告發하지 않을수없다。

우리나라에서 青春映畫가 날개를 펼것은 재작년 金洙容감독의 「青春敎室」이 힛트를친 후의 일이다。 영화의 「장르」를 흉여봐도 青春映畫라는 部門은 없지만 편의상 青春영화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이 青春映畫가 盛行을 보게된것은 日本流行歌의 韓國上陸과 더불어 日本소설의 표절, 내지 飜案物이 行勢를할때原作料가 적게 먹힌다는 製作者들의 商魂이 보따리장사를 해가면서도 그것들의 映畫化에 東奔西走할 무렵부터였었다。

「말마女大生」(李亨杓감독)이 外書館에서 邦畫館으로 바뀐 A劇場에서 大힛트를치자 계속 「맨발의青春」(金基德감독) 「燕雀卒業班」(李亨杓감독) 「바람난 고양이」(金龍彦감독) 「危險한 肉體」(金洙容감독) 「총각 김치」(張一湖감독) 「젊음이 밤을 지날때」(洪性기감독) 「學生酒店」(朴宗鎬감독) 「새드무비」(李奬鴻감독) 「아가씨들 조심하세요」(李星死감독) 「處女性」(洪性기감독) 「學生夫婦」(金洙容감독) 「록마를 나누들」(鄭鎭宇감독) 「容恕받기싫다」(金熙宇감독) 「임어버린太陽」(高英男감독) 「맨발로 뛰여라」(李英鎬감독) 「女子十九歲」(金洙容감독) 등해 일수없는 수많은 청춘영화들이절도 뛰어나왔다。 二年間의 전성기인지 벌탁기인지를 지내자 조금 들해졌으나 마지막 유산격인 「가짜女大生」하나만 보려라도 스토리自體가 「슬플은그대가슴에」(美燕)를 한국사회에 맞게 고친 노력! 이 歷歷히 들어나 보이나 남들이 안가는 억지와 「트치락」의 졸열性 엎치락 뒷치락式으로 끝나가다가 結局 例의 「涙線作戰」으로大尾를 장식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男子大學生의 生態가 浮刻된다。 大賢藝家의 아들(新人 崔英粉)은 「괴크닉」에가서남이 데리고온 太賢賓(가짜女大生)과 눈이 맞아 「결혼」하고 부께가 없다는 美人 金主鑫가 젊은이들에게 「아필」했었는지는 몰라도 기막힌 「트릭」의 設定이오, 主人公을 그토록 만들었다는것은 大學生에 對한 重大한 모욕이다。 이것은제어·돌데이이 騎士道精神의꽃함이 아니고 다뒤운 去來性과 돈이면 다된다는색어빠진 安逸한 思考方式으로 사람을 買賣한것이다。

도대체 젊은이들의 사람의 方式을 적어도 賢에서 그렇게 묘사하는것은 이時勢에 副應하는 것인가。 그리고 太賢賓은 初行인듯한데 「면스·홀」에서 例의 社會族들과 춤을 춘다。 老人네들이보면 요즘 젊은것들은 모두 社交춤을 즐겨이라고 단정할것이다。 이렇이 部類의 映畫에 서는 「가끔 실제의 大學캠퍼스 에 나타나는데 거기에 浮刻되는 大學生像은 전혀어울리지 않는것인지 찾을수가 없다。 靑春에게는 고민이 있다。 成年은 成年이로되 成熟世代는 아니다。 그중간에서 몸부림치고 思惑하는 진실한 大學生의 人間상과 거리가먼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아무리 「라이트」한 것이 佛의 「누벨·바그」的 藝術性도 피우지 못할바에야 「배달춤」의 表象이 아닐수에야 그달랑한 商魂이 아니면 그만 춤 발휘해주기바란다。

「女子十九歲」의 女子高校藝術이 그 연인과 食堂에서 밥을먹다가 상길으로 상체를 구부리고 그것을쳐다보며 그 男性의 性器가오른쪽에있냐 바른쪽에있냐를 물어보는 經驗이든가, 대낮에 왜八角亭가운데서키스를 하는場面은기가막히다 못해 하품이 나온다。 이 「라이트」가 이民族의 美德이라는 말도 있지만이건 노골적인 表現이란든가 奇拔한 手法도 아니다。

「大學生이 이 청춘영화를 만들어낸 책임도있다는 말엔 어느정도수긍이간다。 要는觀客이 이런類의영화를 봐주지 않았으면 이런 추태는 연출되지 않았으리。 그만큼 봐준것은 그것은 참신한 企劃을하고 있는 製作者들에게良心을 마비시켜 버리고 「씨나리오·라이터」들도 이 청춘영화의 투표티어(?)男·威를 상대로 일주일만에脚本을 脫稿하는 괴상한 能力을 키워주었다。

그러나 이청춘영화에도한가지 功(?)은 있다。 安炳燮氏가 「국적모를 戲語」에서 指摘하듯이 그것은 「國産映畫의 觀客을 「고무신」으로 부터 구출시켜 「하이·힐」에 넘긴공적이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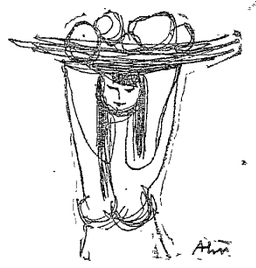
3S의 時代라고 한다。 「스피드·섹스·스펜드」의 三位一體가 젊은이들의 氣質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 大學生은 幾千万원의 「스푸터」를 갖고 스피드의 맛을 즐기는 한생활도 아니며 아직도 結婚部의 쎅스문제를 꽥꽥한 앞으로도 그렇것입니다。 理由는, 간단하죠。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自立精神의 습관을 기르기위해서죠。 참나(鄭玟)의 기지(機智)로밖에 보이지않는춘춘한 처녀들의 氣質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오랜 방학동안의 연극감정, 一種의 欲求不滿의 한 心理라고 말하기엔 너무나거리가 멀다。

○…그러나 우리에겐이 번 3월은 잔인한달로서 뿌아니라 설계와 부수적인 상징도 마감열지를 원망해보더니 이젠 등록금까지 万원이 바로 그것의 촛점이 등록할때마다 잔인한 이류학자인 제시·L·웨스트 女史의 「儀式에서 로만스」에서 「註를 붙해엘리어트 자신이 밝혔다。

이책은 고대의 豐요祭式에서 유래된 悲劇傳說을 연구한것으로 그이야기 주지 제5부에 「다타·다 특할다는 희망이 가슴에가 왜 경찰행정과를 지망했느냐고요? 글세요。 막상 合格되고보니 경찰이 되겠느냐고요? 노력할수 있는데까지 노력해서 훈륭한 여자경찰이 되겠어요。 여자로서너무 하지않느냐는 남학생도 있겠지만 自意로써 이 科에서 熱心히 공부하여 약양되어있는 빈약한 이나라의 을바른 일꾼이 되어보겠다는 희망이 가슴에가득합니다。 남자도 아닌여자가 왜 경찰행정과를 지망했느냐고요? 글세요。 막상 合格되고보니 경찰이 되겠느냐고요? 저자신이 무섭군요。 꼭 경찰이 되겠느냐고요? 노력할수 있는데까지 노력해서 훈륭한 여자경찰이 되겠어요。 여자로서너무 하지않느냐는 남학생도 있겠지만 自意로써 이 科에서 熱心히 공부하여 약



어떤 狀況 ③

姜泰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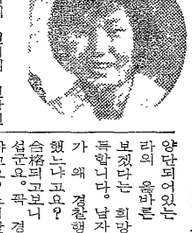
死者들의 것, 그
찬란하던 바다, 山, 江과 숲이
誼 좋은 都市며 들이
죽음 앞에 함께景致를 이루고
내가 살아 가고 있듯이,
아, 어릴 때 그리운 어머니의 품
지금은 차라리 어머니가 어부울!
설은 해도 더 넓은 아들들이 이젠
平和의 속삭이며
景致를 밝게 피운다。
世上이, 빛난는景致인 것이
어둠 위에 피였다고
아들들이 빛과 나란히
生前에 보고 즐기던
어둠이다。
빛은 그 위에景致를 피우고 있다。

<同內·陸>

國籍不明의 大學生像

「누벨바그」도 레알리즘도 아니다

現實의苦悶을直視하라



想斷學入

훌륭한 女警이 되겠다

<警察行政學科>

□李 壽福□

한 여자의 立場에서 같은 여성의 權利를 보호하는데 多少라도 밑받침이 되겠다는 적의信念은 變함이 없는데 있다。 낮에 학교다니는것이 더욱 유익하고 즐겁지요。 그러나 공부하는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理由는, 간단하죠。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自立精神의 습관을 기르기위해서죠。 참나(鄭玟)의 기지(機智)로밖에 보이지않는춘춘한 처녀들의 氣質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大乘佛敎를 圖謀, 正統을 바로잡아 佛敎中興에 힘쓸것입니다』라고 새로운 佛敎의 「부르」를 높고 명랑한기분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大乘佛敎를 圖謀, 正統을 바로잡아 佛敎中興에 힘쓸것입니다』라고 새로운 佛敎의 「부르」를 높고 명랑한기분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佛敎大 朴義善君

이번 佛敎大의 首席을 農林大의 「를」李相喆君보차지한사람천동고出身의 朴義善君은 「무테·시·맨」이 없어 보인다。 나이도 많고 명랑한기분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首席者 프로필

「제가 熱心히 工夫한 탓이라기보다 運이 좋았던것같아요。」이렇게 치렌것같아요。」이렇게 치렌것같아요。」이렇게 치렌